

SOC 확충·민생 안정에 초점

■ 국회통과 추경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민생예산’ 3천8억원 증액 수정안 가결 “서민 위한 실질적 대책 없다” 우려도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직 의원 26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천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예산’ 명목으로 3천8억원을 증액시킨 수정안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보다는 2천969억원이 줄었다.

추경 내용은 이번 추경안은 SOC 건설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도로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애초 상반기 요금 동결에 대한 손실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8천350억원, 가스공사에 4천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분 40%만 보조해 주기로 함에 따라 1조400억원으로 깎였다.

화확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 가격 안정과 어선 감척사업 등 농어 민 지원에도 3천800억원 가량을, 전 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450억원 정도를 쓰게 된다.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2천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유류비(3개월) 지원 508억원 등은 민주당의 요구로 증액된 항목이다.

SOC예산 중 광주·전남지역 예산으로는 ▲목포 ‘청호-삼호’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200억원 ▲국가 지원 지방도로 광주시 ‘본덕-임곡 2’ 구간 40억원, ‘목포-압해’ 구간 128억원, 거금도 연륙교 54억원, ‘담양-북하’ 구간 51억원 ▲전라선 복선전철사업 1천200억원 ▲여수산단 이주대책 89억원 ▲여수산단·대불공단·광주첨단단지 진입로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599억원 ▲목포 신외항 건설 100억원 등이다.

문제점=하지만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노동당 감감파 대표는 이날 18일 정부의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최근 유가급등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편성은 필요하나, 정말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지 그 취지와 효과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줄도산에 직면해 있는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확비료

값 인상액의 전액지원, 장기저리의 축산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유가 보조 기준가격 인하, 수산업분야 유류비 인상액 추가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긴급 유류 구매 자금 2차 보전액 250억원 ▲고효율 유류 절감 장치 국고 지원액 88억 ▲감축에 따른 신원 실적지원비 106억원 등이 반영이 안됐다.

또 부산 전통시장 지원비 30억원 비 ‘수원-인천’ 간 복선 전철 건설비 170억원 등은 내년에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기업 공격적 경영 나서라”

2차 민관합동회의 주재... ‘경제 살리기’ 매진

재계선, 규제 완화·중소 성장 여건 조성 요청

이명박(사진) 대통령은 18일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후 30대 그룹 회장들과 회동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 “우리가 잘 대처하면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차분히 대처를 할 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0대 그룹이 연말까지 전년 대비 27.5% 증가한 96조 3천억원의 투자를 하고, 고용도 전년 대비 30.5% 늘어난 8만 6천 명을 하기로 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기업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때 2~3년을 앞서 내다보고 선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세”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 공무원의 보수 동결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과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이후 두 번 밖에 없었다. 그만큼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투자 및 고용 확대 집행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과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여건 조성 등을 주문했다.

특히, 전경련 조석래 회장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약 절반 가량이 수도



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입지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와 더불어 미국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11개 부처 장관,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들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유성 산업은행장 사퇴하라”

민주당, 금융위기 관련 강만수 경제팀 경질 압박도

민주당은 18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을 비롯해,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특히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와 관련,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획재정부에 참석,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과 시장에 변화와 새로운 정책의지를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려면 경제팀 경질을 통한 인적쇄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금융시장이 외부에 너무 노출돼 있어 위기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 발언에 대해 구두 경고한 것에 언급, “한 총리가 한은 총재에게 입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한 총리가 입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한 총리를 겨냥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정확한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게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민 행장을 거론한 뒤 “며칠전까지 부실당여리 기관에 대한 인수를 진행할 정도로 통찰력이 없는 인사가 국정은행을 맡고 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우리은행 출신 인사들을 열거한 뒤 “대한민국 금융은 우리은행 패밀리가 끌고 있는데 패밀러라고 해서(우리은행지주 출신) 민 행장을 보충해서 인된다”며 “민 행장은 이미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가격이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 민주당이 김종률 의원의 탈당설로 뒤숭숭하다.

김 의원은 18일 일부 언론의 탈당 보도와 관련, “탈당을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 해의 체류중이므로 다음 주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김유정 대변인도 “탈당계를 낸 적도 없다. 정세균 대표도 ‘금시조문’

민주당, 김종률 의원 탈당설 ‘뒤숭숭’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은 강한 부정 이라기보다는 유보적 태도로 보인다.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으며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김 의원의 탈당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총정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

당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당이 변호사 출신의 김 의원 같은 전문가 그룹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386 운동권 출신의 임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강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 대표에게도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47년간 公務員 시험에 전국 최다의 합격에 대세(大勢)를 이룬 중후한 無等を 만나세요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정세관법검찰교보보복군소기전
정행무세원찰공정호전지무방술산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개강 10월 1일(주) 아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총)회원 1년(정)회원
합격시까지 (장기)회원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無等」은 “꼭” 합격 할수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주문양) 222-4560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태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10월 6일 ~10월 18일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전국 최다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입문과 심리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 학장직인,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학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